

광산김씨

광산 김씨의 유래

시조 김흥광(金興光)

광산(光山) 김씨(金氏)의 시조(始祖)는 김흥광(金興光)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주김씨 세보>(慶州金氏世譜)에는 김흥광이 신라 45대 신무왕의 세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및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광산김씨 세보>(光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흥광은 49대 헌강왕의 세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동국사기>(東國史記)와 최치원(崔致遠)의 <납정절표>(納旌節表)에 의하면 헌강왕은 아들이 하나인데 그가 곧 효공왕이니 김흥광이 헌강왕의 아들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신라사기>(新羅史記)에 의하면 신무왕이 처음 김명(金明)의 난을 피해 청해진(淸海鎭, 지금의 완도)으로 가서 궁복(弓福)을 움직여 대군을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 민애왕(閔哀王, 金明)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왕자가 미리 난리가 있을 줄 알고 피해 숨은 것이 이때가 아닌가?”라고만 했을 뿐 어느 왕자인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그 선계(先系)가 실전되어 정확하게 상고(詳考)할 수 없기때문에 다만 김흥광이 신라의 왕자였음은 틀림없다고 본다.

김흥광은 신라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장차 국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깨닫고 경주를 떠나 광주(光州) 서일동(현 담양군 평장동)으로 이주하여 자연과 더불어 학문을 닦으며 살았으며 이후 후손이 번성하여 고려시대에는 정2품직인 평장사(平章事)를 많이 배출하여 마을 이름을 평장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동안 시조의 유허지가 실전되었으나 1741년 후손 김만기(金萬基)가 찾아 그 자리에 유허비를 세우고 다시 1786년 시조단(始祖壇)을 모아 매년 10월 1일 향사하고 있다.

김태현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발전한 광산 김씨는 후대에 와서 김태현(金台鉉)을 파조(派祖)로 하는 문정공파(文正公派), 김규(金珪)를 파조로 하는 낭장공파(郎將公波), 김련(金璉)을 파조로 하는 낭간공파(良簡公派), 김영(金英)을 파조로 하는 사온직장공파로 분파되어 계대(系代)를 이어왔다.

광산 김씨의 관향(貫鄉)인 광산은 전라남도 북서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이전에는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였다가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후 도독(都督)을 두었으며 경덕왕 16년(757) 무주로 개칭하였다. 진성여왕 때에는 견훤(甄萱)이 후백제를 세우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기도 했으나 고려 태조 19년(918) 태조가 신검(神劍)을 토벌하고 군현을 정비할 때 최초로 광주라고 정했다. 고려 성종조에는 해양현(海陽縣)으로 개칭했으며 고종 46년(1259) 다시 기주(冀州)로 고쳐 부르다가 충선왕조에 이르러 화평부(化平府)로 강등되었으나 공민왕조에 광주목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성종조에 현(縣)으로 강등되어 광산이라 칭하다가 연산군조에 다시 주(州)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1895)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나주부 소속의 광주군이 되었다. 이후 1935년 광주읍이 승격되면서 광산군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광산 김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고려초기부터 명문(名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광산 김씨는 시조 이래 그 후손들이 8명의 평장사를 배출하여 일약 명가(名家)로서의 기초를 닦았는데 11세손 김위(金位)와 김주영(金珠永) 형제대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그들의 아들인 김광세(金光世)와 김광존(金光存)은 가문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김광세와 김광존

광세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의 아들 김경량(金鏡亮)이 대장군에 올랐고 손자 김수(金須)는 삼별초의 난 때 장렬히 순절하였으며 김주정(金周鼎)은 충렬왕조에 동지밀직사사를 역임하였다. 공민왕조에 김광재(金光載)는 모친이 죽자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거상(居喪)하니 왕이 이를 듣고 그 효성을 가상히 여겨 그가 사는 곳에 '영창방효자리'(靈昌坊孝子里)라는 정표를 세우게 했다.

김주정

김성원의 <동국여지승람>

김성원(金性源)은 세조조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했고 중종조에 조광조(趙光祖)의 혁신정치에 동조한 소장파였던 손자 김구(金絿)는 김정(金靜), 김식(金湜), 한충(韓忠) 등과 더불어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컬어졌으며 뛰어난 필법과 명문장으로 외교문서를 집필했는데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인 인수방(仁壽坊)에서 이름을 딴 '인수체'란 필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김구는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글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듣고는 이후로 글씨를 쓰지 않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 김극성(金克成)은 중종조에 영의정을 역임하는 등 30여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경륜과 계획이 탁월하여 조정내에 그 명성이 높았다.

김진

광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의 현손인 김진은 대제학에 올랐고 고려말 문과에 급제한 김진의 증손 김약채(金若采)는 대사헌을 거쳐 충청도 도관찰사를 역임했으며 그의 아우 김약항(金若恒)은 공민왕조에 대사성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표문(表文)이 공손치 못하다고 하여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된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약채의 증손 김국광(金國光)

김국광

은 성종조에 좌의정에 오르고 좌리1등공신(佐理一等功臣)으로 광산부원군에 올랐는데 일찌기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는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손녀사위를 삼았으며 언제나 그를 대할 때면 반드시 갓을 썼다고 한다. 김국광의 아우 김겸광(金謙光)도 성종조 이시에(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좌리3등공신으로 광성군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김극뉴와 김극복(金克福)은 대사간과 찬성(贊成)을 각각 역임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김극필은 연산군조에 어지러운 정국에 대해 바른 말을 하다가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고산현으로 유배되었고 이후에도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탄핵을 받아 일생을 귀양지에서 불우한 생활을 했다.

김계

김극뉴의 손자 김계(金鑑)는 명종조에 호조판서에 오르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증손 김계휘(金繼輝)는 선조조 대사헌을 역임했으나 성리학과 예학에 정통하여 국사가 있을 때마다 자문에 응했다.

또한 조선 예학의 종주(宗主)로서 가문의 명성을 더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명종 3년(1548) 대사헌 김계휘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장생은 당대 8문장가로 이름난 송익필(宋翼弼)에게 예학을 배우고 석학 이율곡(李栗谷)에게 성리학을 전수받아 영남학과와 맞서는 기호학파의 영수(領首)가 되었다. 그는 천성이 겸손하며 어질고 후하여 자연히 도에 가깝고 학문하는 방법은 한결같이 종자(種子)와 주자(朱子)를 법으로 삼아 세상살이의 화려함을 싫어하였으며, 당시의 예(禮)에 관한 질문은 모두 그에게로 왔다. 벼슬은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형조참판에 그쳤으나 <경서변의>(經書辨疑) 8권, <의례문해>(疑禮問解) 8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1권, <가례집람>(家禮集覽) 3권, <상례비요>(喪禮備要) 1권 등 총 21권의 저서를 남겨 한국 예전(禮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장생의 예학은 그의 아들 김집(金集)에게 이어지고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에게 전승되어 조선 예학의 태두(泰斗)로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의 아들 김집은 어려서 총명하여 충신효제(忠信孝悌)로서 몸을 세우는 근본을 삼았으며, 이치를 탐구하고 경(敬)을 주장하여 도학(道學)의 터전을 마련했다.

한편 김집의 아들 김익희(金益熙)는 병자호란때 척화론자로서 화의를 반대했으며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가서 독전어사(督戰御史)로 항전했다. 또한 그의 아우 김익겸(金益兼)은 병자호란때 모친 서씨(徐氏)를 데리고 강화에 들어가 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남문에 올라가 자폭하여 영의정에 추증되고 광원부원군에 추봉되었다. 김익훈(金益勳)은 숙종조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의 주역이었으나 남인이 정권을 다시 잡자 강제로 유배되었으며 현종조의 예조참판 김익경(金益旻)은 고(故) 인선왕후(仁善王后)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문제로 송시열등과 함께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하다가 양성으로 귀향했다.

김익경의 아들로서 인경왕후(仁敬王后, 숙종의 비)의 부친인 김만기(金萬基)와 김만중(金萬重) 형제는 나란히 대제학을 역임한 명신으로 유명했다. 유복자로 태어난 김만중은 홀어머니 윤

김장생의 <예학>



문원공 김장생의 영정

씨에 대한 효성이 뛰어나 모친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했다. 특히 남해의 유배지에서 쓴 <구운몽>(九雲夢)은 부귀공명의 일장춘몽이란 내용으로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썼다고 한다.

그밖에도 김인경(金仁慶)은 증종의 딸 혜순옹주(惠順翁主)와 혼인하여 광천위(光川尉)에 봉해졌으며 김언기(金彦璣)는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안동지방의 학문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국가에 대한 충절로서 이름이 높은 김덕령(金德齡)은 명종 22년(1567) 광주 석지촌에서 김봉섭(金鵬燮)의 아들로 태어나 성리학의 대가인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長城)현감 이귀(李貴)의 천거로 익호장군(翼虎將軍)의 호를 받고 의병을 이끌어 왜군과 맞싸 싸웠으며 이어 선전관(宣傳官)이 되어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수차례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선조 29년(1596) 이몽학(李夢鶴)이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토벌하려 가던 중 이미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했으나 당시 충청도 순찰사 종사관 신경행(辛景行)이 이몽학과 내통했다고 무고하여 국문을 받다가 끝내 옥사했다.



김만중의 영정

김만수 형제

한편 김만수(金萬壽), 김천수(金千壽), 김백수(金百壽), 김구수(金九壽) 4형제는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장단에서 유극량(劉克良)의 군대와 합세하여 임진강 전투에서 전공을 올렸으며 김광운(金光運)과 김두남(金斗南)은 진주성 전투에서 용전하다 장렬하게 순절하여 충절의 가문이란 전통을 이었으며 선조조 김질간(金質幹)은 대북(大北)의 영수로서 활약하였고 <동문훈설>(童蒙訓說)을 저술한 김진우(金震羽)와 호남 8문장의 한 사람인 김공선(金公善) 역시 가문의 영예를 더했다.

영조조 김양택(金陽澤)은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 대사성, 우의정을 거쳐 영조 52년(1776) 영의정에 올랐으며 김상복(金相福)은 영의정을 역임하고 영중추부사에 전임되었다.

한말에도 광산 김씨의 인맥은 이어져 금위대장(禁衛大將)을 8 역임한 김기석(金箕錫)과 학문과 덕망이 높아 사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김지수(金志洙) 등이 가문을 빛냈다. 또한 김재풍(金

在豊)은 외세에 흔들리는 국권을 회복하는데 앞장섰으며 김영덕(金永億)은 국운이 기울어짐을 통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김영숙(金永肅) 역시 한일합방을 반대하여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이렇듯 예의충효(禮義忠孝)의 학풍을 중히하고 절의를 지킨 광산 김씨는 오늘 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광산 김씨는 조선조에서만 왕비 1,상신 5,대제학 7,청백리 4,공신 7,문과급제자 265를 배출하여 명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특히 김장생의 후손에서 배출한 7명의 대제학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오직 광산 김씨 뿐이다.

광명에서의 광산 김씨

광산 김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는다. 다만 여타의 가문들처럼 광명시 일직동 (자경리)에 정착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가문의 전통을 이어 학문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명시에 정착한 시기는 (광산김씨 사온직장공 파보) 1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 당시 김원록(金元祿)과 김대덕(金大德)이 현재의 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에 정착하였는데 김원록은 돈령공파(敦寧公派)를 이루어 그 파조(派祖)가 되었으며 김대덕은 김원상(金元相)의 아들로 소봉공파(蘇峰公派) 파조(派祖)의 파조가 되어 이후 두 분의 자손들이 광명시에서 번성하였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명의 정착기

<소봉공파>

25世(始祖) 김원상(金原祥, 金大德의 父)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역임.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26世 김대덕(金大德) 진사(進士), 보승문정자(補承文



소릉공 김대덕 쌍분묘
광명시 일직동 산6번지

正字),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 한성좌윤(漢城左尹), 형조참판(刑曹參判) 역임

27世 김익건(金益堅)

28世 김시일(金時鎰)

29世 김숙(金淑)

30世 김상우(金相宇)

31世 김환익(金煥翼)

32世 김휘진(金徽進)

33世 김기석(金基錫)

34世 김부구(金浮九)

35世 김연직(金淵植)

36世 김희범(金熙範)

37世 김원규(金元圭)

38世 김종운(金鍾云)

39世 김일호(金一浩)

40世 김동천(金東泉)

<돈령공파>

25세 김원록(金元祿) 강원도사(江原都事), 어천찰방(魚川察訪), 예조정랑(禮曹正郎),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역임

26세 김대성(金大成) 통훈대부(通訓大夫)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역임

27세 김익련(金益鍊) 선교랑(宣敎郎) 역임

28세 김시량(金時亮) 통덕랑(通德郎) 역임

29세 김옥(金沃)

30세 김정상(金鼎相)

31세 김낙추(金樂秋)

32세 김원경(金遠慶)

33세 김인석(金仁錫)

34세 김준구(金濬九)

35세 김영직(金永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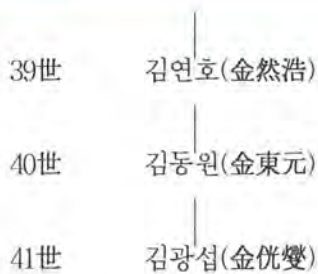
36세 김희수(金熙壽)

37세 김은규(金殷圭)

38세 김종순(金鍾淳)



돈령공 김원록의 묘
광명시 일직동 산6번지



광산 김씨는 크게 문정공파와 문숙공파, 낭간공파, 낭장공파, 사온직장공파 등 5개파로 나뉘는데 광명시 일직동(자경리)의 광산 김씨는 김영(金英, 사온직장공)의 7세손 숙문(叔文)(奉事公 : 八文 중 셋째)의 손으로 계대(系代)를 이어오다가 다시 9세손에 이르러 김원상(金元相)을 파조로 하는 소봉공파, 김원복(金元福, 화성군 반월면)을 파조로 하는 호군공파, 김원록(金元錄)을 파조로 하는 돈령공파 등 3개 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 인근에는 소봉공파가 약 25가구, 돈령공파가 40여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시향제(時享祭)를 지내고 있다.

김익련

광명시에 정착한 광산 김씨는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학문을 닦아 관직에 나아갔으며, 돈령공의 3세손 김익련(金益鍊)이 세자를 보필하는 세자익위사세마공(世子翊衛司洗馬公)의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하고 학풍의 가문으로서 후손들의 후학(後學)에 전념하면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현재에도 후손들의 자녀들이 학문에 뜻을 두고 뜨거운 학구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봉공(김대덕)의 12세손 김장흥(金長興)은 강원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광산 김씨 가문의 명성을 떨쳤다. (봉사공 종중)

광산 김씨의 설화 및 전설

고려시대 공민왕조에 대사성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황제의 노여움으로 유배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김약항(金若恒)은 사

후 황제의 노여움이 풀리자 늙은 여종이 그의 부인이라고 하여 남경까지 가서 그 시신을 찾아왔다. 그러나 <용제총화>에 보면 김약항의 아들 김처는 부친이 외국에서 죽었으므로 충격을 받아 미친병이 들어 매일같이 소리내어 울고 밤에는 시구(詩句)를 길게 읊으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한다.

둘째 아들 김허(金虛) 역시 관직이 부정(副正)에 이르렀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상을 당하자 여막의 벽에 <효경>(孝經)의 상친장(喪親章)을 써서 붙이고 날마다 바라보며 읽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를 3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그 비참하게 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눈물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김허

김장생(金長生)의 학통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김집(金集)은 40여년간 그의 부친을 모셨는데 언제나 부자(父子)의 법도를 지켜 아들이 질문했을 때 부친은 병을 앓고 있을 때라도 단정히 앉아서 대답하는 것이라든지 각상(各床)과 각방(各房)에서 밥을 먹을 때 부친의 젓가락 놓은 소리를 듣지 않고는 미리 밥상을 물리는 법이 없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김집의 일화

김집은 부인 유씨의 성품이 분명하지 못하여 부부의 도리를 갖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이율곡(李慄谷)의 서녀(庶女)를 얻어 첩으로 삼았다. 이후 김집의 부인이 죽자 부친 김장생은 아들이 상처하였으니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아서 선대를 계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좋아했다.

그러나 김집은 "사람이 각각 운명이 있는 법인데 운명이 좋지 않아서 먼저 사람(유씨)과 짝이 되어 욕을 보았는데 이제 비록 다시 장가든다고 하여도 꼭 먼저 사람보다 나을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대(代)를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인조 24년(1646) 산적 류탁(柳濯)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류탁은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김승지(金丞旨, 金集) 집을 지나가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신하들에게 "흉악한 무리들도 어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할 줄은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젊어서 높은 학식과 뛰어난 용맹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던 명장 김덕령(金德齡)은 일찌기 이귀(李貴)가 그를 천거하는 글에 “지혜는 공명(孔明)과 같고 용맹은 관우(關羽)보다 낫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그가 전투에 임할 때면 언제나 첩퇴 두 개를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그 무게가 백근이나 되어 그를 ‘신장(神將)이라 불렀고 왜군들도 그를 매우 두려워 했다고 한다.

또한 <난중잡록>(亂中雜錄)에 의하면 왜장 기요마사(加藤清正)는 그의 명성을 듣고 몰래 화공을 보내어 그 얼굴을 그려다가 보고는 “참으로 훌륭한 장군이다”하고 감탄했으며 뒤에 김덕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술을 마시며 기뻐 날뛰면서 “이제 양호(兩湖)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